

석유시장 정상화와 자유화

석유시장 바로세우기를 제안하며...



우완식

〈대한석유협회 회장〉

개방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석유업계의
체질 강화를 통해서
시장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석

유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실타래가 얽혀 있듯이 무언가 비정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비정상의 시장으로도 국민에 유익을 주고 업계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굳이 석유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 비정상이 존재하고 이것이 사회에 비정상의 반향을 불러 일으킨다면 석유시장의 정상화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97년 국내 제품가격 자유화, '99년으로 예정된 정유업 신규진입 자유화와 대외개방을 1년에서 수년 앞둔 상황에서 석유시장의 조속 정상화는 필수불가결하며, 이것이 일련의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집단이 정치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다방면의 유익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집단이 국민을 외면한 채 자기집단의 유익에 봉사하고자 할때 당리당락을 일삼는 집단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당리당락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 국민은 외면당하고 경제도 잘 될리 없다. 국민이 행

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치정상화가 필요한 것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로다. 경기과열에 의한 거품을 제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기업인도 온전히 기업경영에 매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여진다. 경제가 정상화되면 건전한 투자가 늘어나고 연이어 직장도 늘어나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결국은 국민이 잘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와 경제의 정상화가 국민과 사회를 위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필요한 것과 같이 석유산업의 정상화 역시 국민에게나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왜 석유 시장에서의 정상화가 필요한 것인가.

우선 석유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우리의 쌀」시장이 안보차원에서 중요하고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지원을 공급하는 석유산업은 비록 원유를 국외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경제와 유통부문에서 외국에 내어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대외 개방은 이제 불과 3년 앞으로 다가 왔다. 개방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석유업계의 체질강화를 통해서 시장을 지키는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강화되는 환경보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기본이다. 소비자의 변화하는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석유업계는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석유업계는 지금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강화되는 규격강화와 소비 성향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적기투자가 필요하나 자금력이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금은 한정되어 있으나 과열된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마케팅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설비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쓰여져야 한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화와 고도화에도 투자를 게을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대로라면 이러한 풍토조성이 이루어지기는 난망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와 품질로 승부를 거는 건전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 단기적이고 제살 깎이식 경쟁에서 탈피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쟁에 매달리다보면 결국 큰 것을 놓쳐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에 일고 있는 품질을 개선하거나, 환경보호 측면을 강화한다거나,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다수 소비자에게나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에 의거한 노력이 축적되다 보면 우리만의 노하우(Know-How)가 생기고 우리 업계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된다.

다음으로 석유산업 자유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지난

제조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설비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쓰여져야 한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쓰여져야 한다.

'94년 자유화 조치로 '94년 1월 부터 현재까지 고정적이던 제품가격을 국제시장에 연동하게끔 하였다. 완전한 제품가격 자유화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최소화하지는 의도였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가격구조와는 다른 국내 제품의 가격구조도 차츰 국제시장에 맞추어 가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정유업계도 이러한 체제에 적응하면서 자유화를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적응기간 준비기간이 없다면 갑작스럽게 전면 자유화를 맞이했을 때 이를 부작용 없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준비기간을 통하여 석유업계가 자유화란 상황에 적응하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우리 업계는 이러한 기회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과당, 과열경쟁은 석유산업 자유화를 준비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와 정력을 흘려버리는 것과 같다. 석유산업 자유화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업계는 이제 눈에 보이는 외형에 얽매이지 말고 내실을 쌓아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고객에게 밀착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아이디어의 창출과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중복되는 말이지만 석유시장 정상화는 고객을 위한 것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은 고객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이 뿌리 내리던 우리 업계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더욱 비중을 둘 수 있다. 최소한 과도한 마케팅 집중으로 부터 오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증대될 수 있다. 저공해 연료유와 미래의 무공해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방편이 아니겠는가.

정치권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권에서도 정도 경영과 자율경영, 정경분리 등을 통한 자성과 함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석유업계도 이에 부응하여 시장질서 바로세우기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석유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는 석유업계에서의 불협화음으로 고객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비난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고객으로 부터 등돌림을 당한다면 고객은 다른 선택을 준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서비스와 품질로
승부를 거는 건전한 경쟁이
일어야 한다.
단기적이고 제살깎기식
경쟁에서 탈피해야 한다.